

계축문화사

저 자 : 대한가정의학회

발 행 : 200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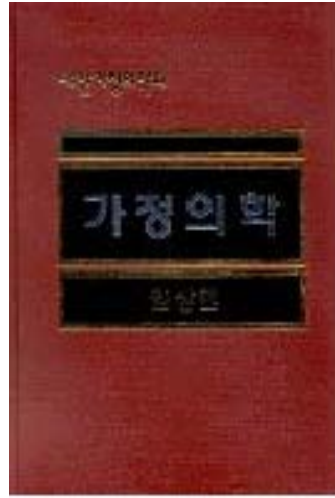
정 가 : 90,000원

면 수 : 1678쪽

가정의학에 관한 국내 서적들이 지금은 너댓 권 정도나 된다. 하지만 저자가 가정의로만 이루어진 임상 교과서가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지난 97년 가정의학 교과서 '총론편'에 이어 '임상편' 발간을 준비해왔고 드디어 전국 가정의학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중 110명이 참여해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저자의 대부분은 대학병원 전임강사 및 수련병원 전공의 지도경력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2년에 걸친 설문 조사와 공청회 등의 실무작업이 필요했고 워낙 많은 저자들이 참여한 관계로 원래 예상했던 일정보다 많이 늦추어졌다고 한다. 주된 독자층은 일차의료를 진료하는 개원의 위주로 하였고 전공의나 의과대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일차의료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 검사, 수기로 선정하였다.

먼저 목차를 보면 국제질병분류(ICD-10)에 준하



여 계통별로 분류하였고 각 장마다 질환 또는 증상, 검사, 수기를 묶어서 편집하여 바쁜 진료시간에서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편을 보면

질환에 대해 먼저 나오고 피부 질환과 관련된 임상수기, 즉 낭종 제거, 농양배액술, KOH 검사법, 내향성 발톱의 치료법, 점, 기미, 주근깨 제거법이 나온다.

본문 내용을 보면 메뉴얼처럼 너무 간단하지도 않고 교과서처럼 지나치게 원론적이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간결한 서술식이다. 처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되 가능한 근거중심의학의 원칙을 지키려 하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문헌을 전반적인 참고문헌과 치료에 대한 참고문헌으로 나누어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단 아쉬운 점은 그림, 표 등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 실제 개원가에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이다. 하지만 주위 전공의나 학생에게 권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정리: 이인구]